

#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February No.109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6년 1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156호]

(2026.02.05~2027.02.04)

 NH-Amundi자산운용

# Contents

01. CIO 칼럼	03
------------	----

## 02. 시황 및 추천펀드

· 국내주식 전망 및 추천펀드	05
· 국내채권 전망 및 추천펀드	07
· 해외주식 전망 및 추천펀드	09
· 해외채권 전망 및 추천펀드	11

## 03. 하나로 TDF 시리즈

· 하나로TDF 시리즈 소개	13
-----------------	----

## 04. HANARO ETF

· 추천 HANARO ETF	14
-----------------	----

# CIO 칼럼

## Controlled Disorder의 시대

2026년 새해는 전세계 곳곳을 대상으로 한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꼬리를 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대통령 체포, 15일 이란 시위사태에 대한 무력 개입 언급,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NATO 8개국에 대한 관세부과 예고와 22일 다보스포럼에서의 전격 철회, 23일 미국채 금리와 엔달러 환율 급등으로 레이트 체크(rate check) 등으로 전세계 투자자들을 바쁘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남미,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조금 더 분석해보면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로 대변되는 전략자원의 확보, 경제적 블록화에 이은 군사 블록화, 그리고 달러패권주의 방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사태로 살펴볼 수 있는 자원 우선주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으로 마약 카르텔 전쟁이라는 명분에도 석유자원 국유화를 내건 마두로 정권이 제거되면 미국 메이저 오일기업들이 안정적인 원유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중국과 첨예한 대립 속에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희토류와 우라늄 등 전략광물 매장량의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전략인 골든돔 계획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린란드가 향후 미국의 전략자원과 군사전략의 핵심지역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략자원 확보와 군사력 강화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국은 최근 재정적자 문제로 국채발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채금리와 달러환율에 민감한 이유입니다. 강력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국채발행 확대에도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정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인 일본에서 국채금리와 환율 급등이 발생하자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였고, 결국 미국 재무부는 오랫동안 묵혀 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다시 꺼내 들며 강력한 시장 개입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의 상시화' 라고 할 만큼 빈번하게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하고, 개별 이벤트마다 미국의 관세와 연계되어 금융시장은 단기적 스파이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기 사이클과 기업 펀더멘털 모두 견조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026년은 변동성의 높은 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미국 위주에서 국가, 통화 분산 및 헤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 일본 및 EM은 분산투자 및 달러약세의 대응 전략으로, AI와 기술 테마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위주에서 관련 설비 테마로 확장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달러약세 기조에도 탄탄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선반영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달러포지션 축소보다는 통화 다변화를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은 여전히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입니다. 특히 달러화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수록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서진희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총괄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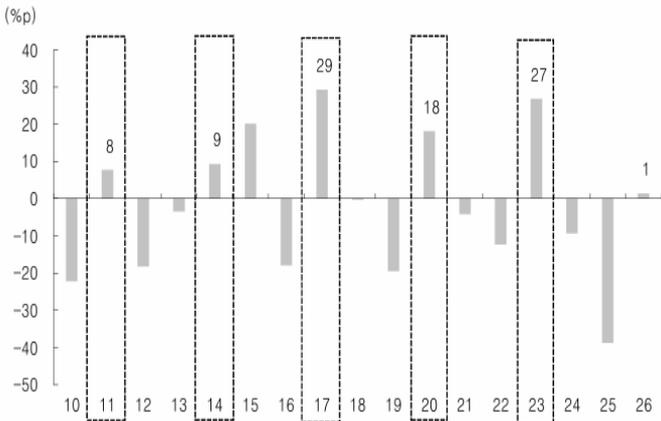
## 시장전망

1월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KOSPI는 전 인미답의 5,000포인트를 장중 돌파하며 17.45% 급등했고, KOSDAQ 역시 1,000pt를 상회하며 15.01% 상승 마감했습니다(1월 26일 기준). 섹터별로는 CES 2026에서 확인된 로봇틱스 모멘텀에 힘입어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로봇주가 급등세를 연출했고,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긴장과 트럼프의 "국방 예산 50% 증액" 발언이 맞물리며 방산주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보스 포럼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사 발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이후 무력 사용 배제 언급과 유럽 8개국 관세 철회 결정이 이어지며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1월 FOMC의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번 주 발표될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벤트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스피 공약을 단기간 달성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으로 정책 스탠스가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의지는 결코 약하지 않으며, 시장의 다음 관심은 코스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KOSPI 대비 큰 폭의 underperform을 기록했던 KOSDAQ 150 지수는, 올해 3년차를 맞아 정책 모멘텀과 수급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며 '키 맞추기' 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KOSDAQ150 지수의 코스피대비 연도별 상대 수익률



\* 출처 :BK투자증권

## 추천 펀드

###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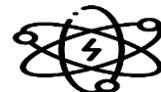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산업 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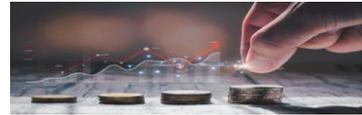
### 주주가치 제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C	C-P1	C-P2
선취수수료	1%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62%	1.00%	0.70%	0.68%
운용보수	0.9%			
기타보수	수탁 0.02%,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시장 전망

1월 국고채 금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주로 영향 받았습니다. 12월 말 외환 당국의 강한 개입에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1월 초부터 재차 상승해 금통위 직전에 전고점인 1,480원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환율 상승에 매파적 금통위 결과가 예상되며 금리도 소폭 상승하였으며, 실제 고환율을 이유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닫아버리면서 회의 이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 재정 우려에 따른 엔화 약세와 글로벌 금리 동반 상승, 대통령의 추경 언급까지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1/27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14.0bp)

미국의 고용 둔화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는 점은 연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유지에 우호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신임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인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 있으나, 친정부 인사 지명 시에는 연준 독립성 우려로 장기 금리 위주로 상승세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높아진 불확실성에 주요국 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일 외환당국 공조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도 1월 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월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관련 불확실성 감소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차츰 하향 안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실종된 상황이라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 출처 : 신영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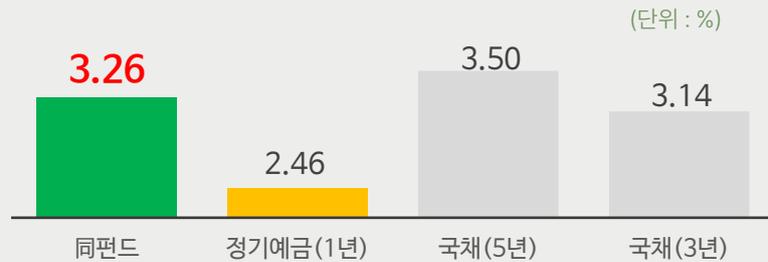
## 추천 펀드

###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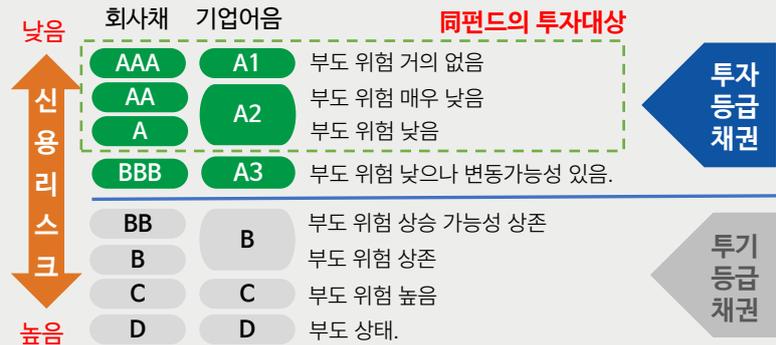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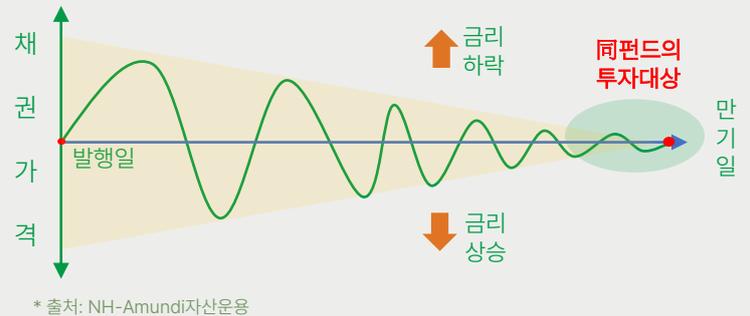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재로인, 은행연합회(26년 12월 31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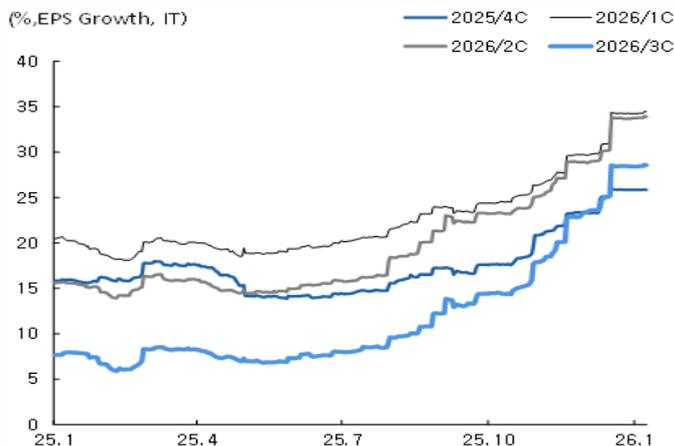
# 해외주식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시장 전망

1월 글로벌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월 초에는 AI 과잉투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술주가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산업재, 자원주,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돋보였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대 유럽 관세 위협,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판결, 신용카드 이자 10% 상한 규제 발언, 일본 금리 급등과 이후 미국/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 가능성 대두, 엔트로픽 사의 '클로드' 시가 불러온 소프트웨어 회사 충격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습니다. 금 가격은 500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세를 지속하였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주식이 중심인 증시는 압도적인 상대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심을 잡기 위해 물가에 부담이 될 과격한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위협수단으로 삼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냈으며, 지지율에 피해를 입힐 물가 급등을 초래할 이벤트는 최대한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TSMC의 대규모 설비투자계획 등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FED가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IT섹터의 EPS 증가율 전망치 추이



\* 출처: CME Group Fed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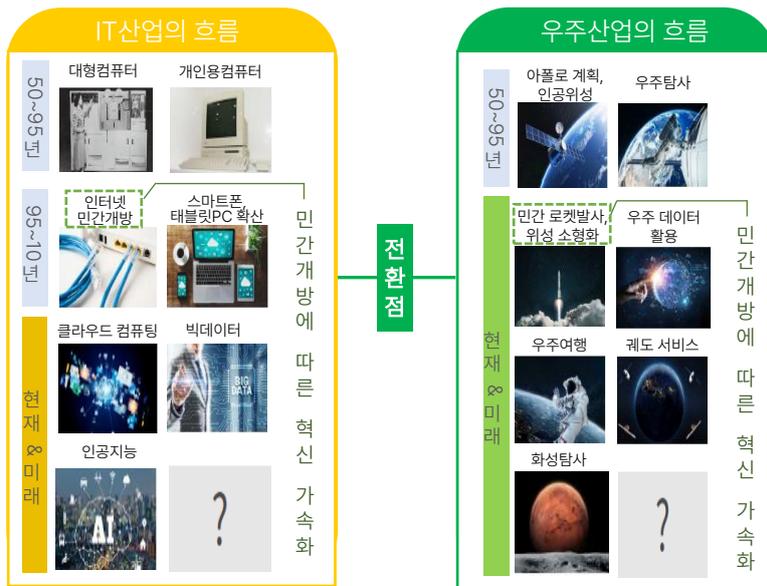
## 추천 펀드

###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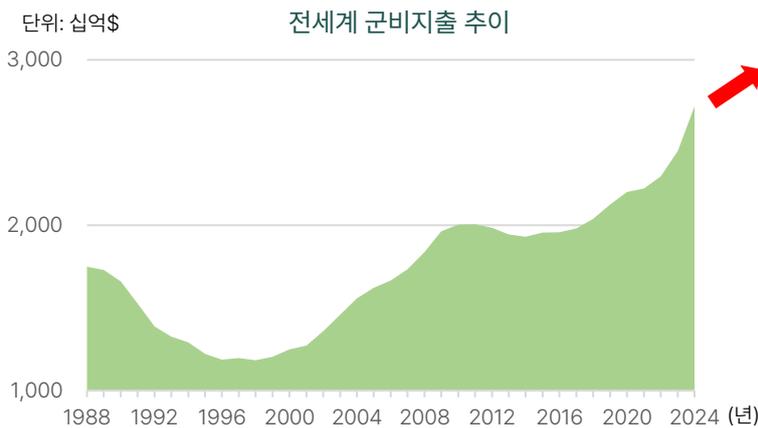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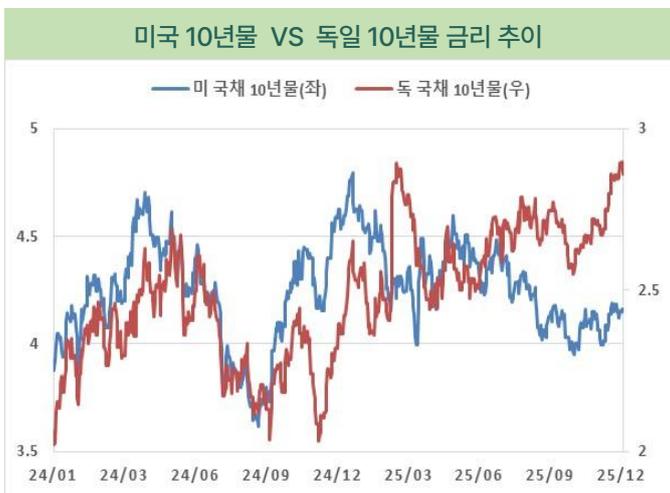
# 해외채권 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시장 전망

1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표에서 주거비가 전월비 +0.3% 상승하며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글로벌 한파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이 약 100%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새 총리가 일본 중의원을 1/23해산시키고 재정확대 정책을 더욱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자 정치적 불안이 커지며 일본 금리가 상승하였고 이에 글로벌 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8년물 +15bp, 독 10년물 +2bp)

2월 글로벌 채권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반기 상승 이후 월말로 갈수록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2월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4분기 높은 GDP 성장 이후 (3% 중반 예상), 한파로 인한 소비위축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이 0~1%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 점차 금리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FOMC의장이 비둘기파적 성향을 보이면 점차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인컴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이 높지 않고 꾸준한 캐리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금리의 변동성이 높을 때 양호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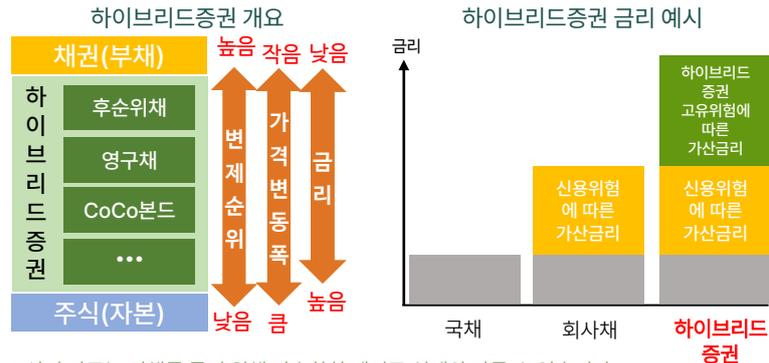
## 추천 펀드

###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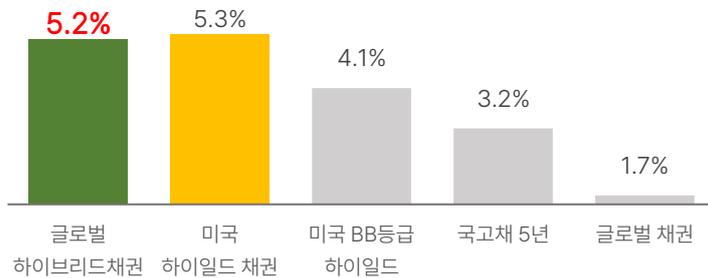
####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5년 11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 발행 기관 예시

<p>프랑스 전력공사</p> <p>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p> <p>신용등급 : BBB+(S&amp;P)</p>	<p>도이치뱅크</p> <p>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p> <p>신용등급 : A(S&amp;P)</p>
--	--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할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 ~ 100%)이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